

# 회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원제: 춤의 왕)

Lord of Dance

Sydney Carter

Musical notation for the first system of the song, including a treble clef,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4/4 time signature. The melody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with various notes and rests.

1.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2. 높은 양반들 위해 춤을 추었을 때 그들 천하대사용 보고 비웃었지만
3. 안식 일에도 쉬지 않고 춤춰오니 높고 거룩한 양반들 환호 내면서
4. 높은 성가사에서 피를 흘리면서 춤을 계속해 주 기란 힘이 들지만
5. 어리 석게도 그들 쫓아 넣지 않으니 나는 생명이 다서 결코 죽지 않는다

Musical notation for the second system of the song, continuing the melody from the first system.

내가 베를레헴에 태어났을 때도 하늘의 춤을 추었다  
 어부 위에서 춤을 추었을 때에는 날 따라가기에 춤을 추었다  
 나를 때리고 웃을 벗겨 매달았다 성가사가에 못을 박았구나  
 끝내 땅속에 갇히지 않았고 네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줄 건다  
 네가 내인애하면 나도 네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줄 건다

Musical notation for the third system of the song, including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melody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속에 너인도 하련다

Copyright (C) 1983 Steiner & Nelt Ltd. International Rights Secured

Musical notation for the first system of the hymn, including a treble clef,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4/4 time signature. The melody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1. 경의 가로 강새를 물치리며 평지나 가온 들수난 불치 월
2. 눈물 가로 강새를 물치리며 평지나 가온 들수난 불치 월

Musical notation for the second system of the hymn, continuing the melody from the first system.

사광이 라 헛-빛 앞 에 하나 님 는 주 신 생 명 짝 연 령 다  
 보아 라 우 리 는 앞 에 세 하 는 주 신 생 명 짝 연 령 다

Musical notation for the third system of the hymn, including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melody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회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 의 약속 곧 계 민 으 며 인 곶

Musical notation for the fourth system of the hymn, including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melody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Musical notation for the fifth system of the hymn, including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melody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Musical notation for the sixth system of the hymn, including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melody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아 념 녘 어 겨 도 약 속 을 곧 게 민 으 며

시편 49편

<p>1, 2 만민들이 귀를 기울여라. 만백성이 이 말을 들어라. ○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다 들어라.</p> <p>3 내 마음의 생각은 슬기를 지녔고 ○ 내 입의 말에는 지혜가 담겼다.</p> <p>4 내가 속담에 귀를 기울이고 ○ 수금을 뜯으며 수수께끼를 풀리라.</p> <p>5 악을 꾸미는 자들이 나를 뒤쫓고 노려보아도 ○ 이 곤경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p> <p>6 한갓 돈 많음을 자랑하며 ○ 재물을 믿는 그들이거늘, 7 하느님께 돈을 바친다고 ○ 죽을 목숨을 살려 주시랴? 8 제 목숨 값은 엄청난 것, ○ 그 값을 치르기는 감히 생각도 못 할 일이다.</p> <p>9 저승길을 가지 않고 ○ 영원히 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마라.</p> <p>10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모두 죽는 법이다. ○ 그 재산은 결국 남에게 두고 가는 것!</p> <p>11 그들이 땅에다가 제 이름 새겼더라도 ○ 그들의 영원한 집, 언제나 머물 곳은 무덤뿐이다.</p> <p>12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리도 ○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을 뿐이다.</p>	<p>13 제 잘난 멋에 사는 자가 그 꼴이 되고 ○ 제 말만 내세우는 자도 그렇게 되리라.</p> <p>14 양이나 소가 끌려 가 죽고 말듯이 ○ 죽음에 몰려 저승으로 곧장 가리라.</p> <p>9 죽음이 그들을 다스릴지니 ○ 마침내 그 모습 사라지고 영원히 저승을 벗어나지 못하리라.</p> <p>15 그러나 하느님은 나의 목숨을 구하여 ○ 죽음의 구렁에서 건져 주시리라.</p> <p>16 누가 부자 되었다 해도, 그 가문이 명성 떨친다 해도 ○ 너는 시샘하지 마라.</p> <p>17 죽을 때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고, ○ 명예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p> <p>18 세상에서 잘 산다고 스스로 축복하고 ○ 복스럽다고 사람들이 칭송한들</p> <p>19 그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곳, ○ 조상들이 모인 그곳으로 가고 말리라.</p> <p>20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리도 ○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을 뿐이다.</p> <p>◎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	--

복음서: 루가(누가)복음 17:20-37

<p>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p>	<p>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멧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p> <p>○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p> <p>●하느님께 감사합니다.</p>
---	--